

2021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에 대해,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악한 이 시대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진리의 영, 곧 실재의 영께서
성경에 기록되고 담긴 영적인 사실들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받는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 있는 말씀을 접촉하여,
신성한 실재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적용된 말씀으로
우리 존재 안에 주입받을 수 있다.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신성한 진리로 조성되어야 하고
신성한 진리의 길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하며
신성한 진리의 확산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리이다.
교회의 증가는 진리의 확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교회의 번성과 확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체 주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며,
악한 이 시대에서 진리를 선포함

메시지 1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며,
세상의 현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함

성경: 요 18:37하, 엡 2:2, 롬 12:2, 요일 5:19하-20

- I.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 답후 3:16.
- A. 진리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 요 1:1, 14-17, 14:6, 16-17, 15:26, 16:13, 17:17, 18:37하.
 - B.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고 오해받고 잘못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다 — 답후 2:15.
 - C. 회복에는 가장 높은 진리, 곧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의 완결인 진리가 있다 — 답후 2:2, 15.
- II. 요한의 글들에서 '진리'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알레테이아)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재를 가리키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밝혀진다 — 요 17:17, 18:37하.
- A. 진리는 하나님이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신성한 것들의 실재가 되셨다 — 요 1:1, 4, 14-17.
 - B. 진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며,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실재,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그림들과 그림자들의 실재, 그리고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이시다 — 골 2:9, 16-17, 요 4:23-24.
 - C. 진리는 그 영이다. 그 영은 변형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며,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시다 — 요 14:16-17, 15:26, 16:13-15.
 - D. 진리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성하고도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를 계시하고 전달한다 — 요 17:17.
 - E. 진리는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은 완전한 복음의 실재이며, 우리가 믿는 것의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 엡 1:13.
 - F. 진리는 하나님, 우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한 실재이다. 이것은 창조물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다 — 롬 1:18-20, 2:2, 8, 20.
 - G. 진리는 참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신실함이다. 하나님께 있는 이러한 미덕은 신성한 미덕이고,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이러한 미덕은 인간의 미덕이며, 신성한 실재가 흘러나온 것이다 — 롬 3:7, 15:8, 고후 11:10, 요일 3:18.
 - H. 진리는 참되거나 실재적인 것들, 일(사실)들의 진상이나 실상, 실재,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짓됨, 속임, 숨김, 위선, 오류와 대립된다 — 막 12:32, 요 16:7, 롬 1:25.

III. 신성한 진리는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신성한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요삼 3-4, 8.

- A.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제쳐 두고, 사적인 관계들을 돌보지 않으며,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마 16:24-25, 벰전 1:22.
1. 진리가 유일한 표준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에게서 구출될 때에만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 요 8:32, 요이 2, 요삼 3-4.
 2. 만일 진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살후 2:10, 요일 5:20.
 3.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갈망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킬 것이다 — 잠 23:23.
 4.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해야 하고, 진리의 길을 취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 벰후 2:2.
- B.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들과 주관적인 진리들 모두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요 8:32, 14:6.
1.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모두 있다. 객관적인 면은 주관적인 면을 위한 것이다 — 롬 8:34, 10, 골 3:1, 1:27.
 2. 객관적인 교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이 1-2, 4, 요삼 3-4, 7-9상.
 3.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특별히 삼일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요 1:14, 14:16-20, 담전 6:15-16, 담후 4:22, 3:15-16.
 4. 매우 중요한 주관적인 많은 진리들이 매장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진리들이 부활하여 회복되고 부활한 진리들이 되었다 — 요 17:17, 18:37하.

IV.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할 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탄, 마귀, 거짓의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의 신’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엡 2:2, 요 8:44, 12:31, 고후 4:4.

- A.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죽음과 어둠을 가져온다. 진리의 반대인 거짓은 어둠과 함께한다 — 요 8:44.
1. 마귀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 요 8:44.
 2. 사탄의 어둠은 신성한 빛과 대립되고, 사탄의 거짓말은 신성한 진리와 대립된다 — 요일 1:6.
 3.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빛의 표현이듯이, 사탄의 거짓말은 사탄의 어둠의 표현이다 — 요 8:12, 44.
- B.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시대의 통치자이다.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이다 — 고후 4:4.
1.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눈멀게 하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절에서 ‘생각’은 생각의 이해력을 가리킨다.
- C.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요일 5:19하.
1. 사탄적인 세상 체계 전체와 타락한 인류인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다.
 2. 헬라이어에서 ‘악한 자’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사악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안에 놓여 있다 — 요일 5:19하.

3.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심판받았다 — 요 12:31, 14:30, 16:11.
- D.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은 많은 시대로 이루어지는 사탄의 체계를 가리킨다.
1. 한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이다.
 2.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풍조(직역하면 ‘시대’)'는 사탄의 체계의 현재와 현대의 유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된다.
 3.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를 가리킨다.
- E.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원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라고 한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1. 여기서 본받는 것, 혹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우리의 내적 존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 요 1:12-13.
 2.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된 우리가 이 시대와 같은 형상이 될 정도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게 함으로써 생각의 영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일해 놓여진 새로운 요소에 의해 새로워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 엡 4:23, 고전 6:17, 롬 12:2.
- F.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진리를 허리띠로 두르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엡 6:14상.
- G.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음으로써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신성한 진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 요일 5:20.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진실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 요 1:14, 18, 요일 5:20.
 2.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 참되신 분’, 곧 참되신 분이시자 참이신 분을 두 번 말한다.
 - a. ‘참되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하나님, 곧 객관적이시지만 우리의 생활과 체험에서 참되신 분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 b. 참되신 분은 신성한 실재이시다.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은 신성한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이 실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 c. 20절은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실재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실재가 된 것을 가리킨다. 이 전에 우리에게 객관적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실재가 되셨다 — 요일 5:6.
- H. 우리는 참되신 분과 진리의 영을 알기 때문에(요일 5:20, 4:6),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하나님-사람들로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읍시다.”(요 18:37하)라고 말씀하시며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메시지 2

진정한 하나를 위해 진리에 의해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

성경: 요 17:14-24

- I.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 위에 비쳐서, 이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 주는 신성한 빛이다. 신약에서 진리는 이러한 종류의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영상’을 의미한다.
- A. 모든 신성한 사실들은 말씀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영계서 말씀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영상’을 본다.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 위에 비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해 주며,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 — 행 26:16, 19, 엡 1:17-18상.
 - B. 그 영은 진리의 영, 실재의 영이라 불리신다(요 14:17). 실재의 영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해 주는 ‘하늘에 속한 전기’이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시고’(요 16:13), 아들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신다(1:14, 17, 14:6).
 - C. 진리의 영, 곧 실재의 영계서 성경에 기록되고 담긴 영적인 사실들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받는다. 그 영의 빛 비춤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교리나 ‘뉴스 보도’를 들을 뿐 진리나 실재나 이상은 얻지 못할 수 있다 — 비교 욥 42:5, 요 5:39-40, 고후 3:6.
 - D. 진리는 빛의 비춤, 곧 빛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표현된 빛이다. 빛은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는 빛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 요 1:4-5, 7-9, 12-13, 8:12, 14:6, 요일 1:5-6, 요이 4, 요삼 3-4.
 - E. 주님은 빛과 진리와 말씀이시다. 말씀은 또한 진리로서 빛을 내는데, 이것은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 요 8:12, 14:6, 17:17, 시 119:105, 130.
 - F. 진리는 빛의 비춤이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와 빛과 생명은 분리될 수 없다. 신성한 빛이 우리 속으로 비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고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준다 — 요 8:12, 32, 40, 12:35-36, 46, 14:6.
- II. 진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 A. 진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 — 요 8:32, 36.
 - B. 진리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그리고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요소로 적셔 준다 — 요 17:17, 엡 5:26.
- III.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화되시고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고 주입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이시다.
- A.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잠시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 — 시 119:25, 37, 40, 50, 88, 93, 107, 149, 154, 156, 159.
 - B.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 주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속에 일해 넣어진다. 이것이 살아 계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분별시키시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다.
 - C. 매일 아침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 있는 말씀을 접촉하여, 신성한 실재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적용된 말씀으로 우리 존재 안에 주입받을 수 있다 — 요 1:1, 10:35, 5:39-40, 6:63, 엡 5:26, 6:17-18, 시 119:15.

1. 이렇게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질 때, 우리는 성질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온갖 거짓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며, 우리는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얻는다.
 2.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동안 우리는 또한 위치적으로뿐 아니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고 하나님께 성별된다. 바로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일해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 D.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때에도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 E.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살아 계신 영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거룩하게 된다.
- F.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은 매일 우리 안에 더해지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 G.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살아 있는 말씀과 적용된 말씀을 통해 살아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입되시고 일해 넣어지시는 것이다.

IV.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하여 하나를 가져온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함은 하나를 산출한다 — 요 17:14-24.

- A.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 요 1:14, 17, 14:6, 17, 17:17, 요일 5:6.
1.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진리의 영으로 실재화되시며, 그 영은 말씀과 하나이다 — 골 2:9, 요 14:17, 16:13, 엡 6:17-18.
 2. 열린 마음과 열린 영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진리인 말씀과 진리이신 그 영 모두를 접촉한다.
- B.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는 생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분열의 모든 요인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 C.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 주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1.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2.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은 오직 분열의 모든 요인들을 처리하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뿐이다.
 3.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짐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러나 삼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된다.
 4.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접촉하고, 살아 있는 말씀을 만지며, 신성한 실재를 우리 존재 안에 주입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분열의 요인들이 극복된다.
 5.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요인들이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 안으로 이끌리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함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 주기 때문이다.
 6.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몸의 하나가 곧 삼일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이다 — 요 17:21.

V. 분열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

- A. 이 요인들 중 첫 번째는 세상적임이다. 우리가 어떤 방면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방면의 세상적인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 — 요 17:14-16, 18, 요일 2:15-17, 5:19.

- B.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은 야심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존재 안에 놓여진 진리가 우리의 야심을 죽인다 — 비교 사 14:13.
- C. 분열의 세 번째 원인은 자기를 높임이다. 우리는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중요하신 분으로, 곧 우주에서 으뜸이신 분으로 높여야 한다 — 골 1:18, 고후 4:5, 요삼 9-11.
- D. 분열의 네 번째 요인은 의견과 관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고수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주님의 목표, 곧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 — 마 16:21-24, 비교 계 3:14.

VI.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 요 17:11, 17, 21-23.

- A. 우리 자신 안에는 분열의 네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가 자아 안에 머문다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 B.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 요 17:21-23.
- C.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인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 1.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올 때,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실재인 이 두 가지, 곧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 2.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자아라는 한 거처에서 나와 삼일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거처로 이사한다.
 - 3. 매일 우리는 이렇게 이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임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 4.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매일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 처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 처소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 5.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면 거룩하게 되고, 분열의 요인들에서 분별되며, 또한 하나님께 분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분별된다.
 - 6. 진정한 하나님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요 17:17, 21). 그런 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요 17:23상).
 - a. 이렇게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다 — 엡 4:16.
 - b.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어느 지방에서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 D.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 요 17:23.
 - 1.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3.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4. 다시 말하면,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는 동안,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신다. 이러한 이중(二重)의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며,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표현한다.
- E. 야심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함축되어 있고, 자기를 높임은 22절에 함축되어 있으며, 관념과 의견은 23절에 함축되어 있다.
1. 삼일 하나님 안에는 야심이 없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자기를 높임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의견이 없다.
 2.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야심은 삼켜지고, 자기를 높임은 사라지며, 관념과 의견은 죽음을 당한다. 여기에는 사탄이 체계화한 세상에 있는 분열의 악이 전혀 없고(요 17:15), 반대로 진정한 하나가 있다.
- F. 진정한 하나는 아버지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며, 아버지의 영광 곧 아버지의 표현 안에 사는 것이다 — 요 17:22, 24.
1.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표현,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2. 참된 건축인 하나는 오직 삼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유력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하나를 체험할 수 있다.

메시지 3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기 위해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의 길과 진리의 확산에 대해 절대적임

성경: 요 8:12, 32, 요일 1:5-8, 요삼 3-4, 8, 딤편 2:4, 4:3

- I.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조성하시어, 교회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 앱 3:8-10.
- II.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 요일 2:4, 요이 1-2.
- A.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 우리의 조성 성분,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이다 — 요일 1:8, 4:6, 5:6.
 - B. 우리 안으로 조성된 견고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 딤편 4:6.
 - C.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계 21:12상, 17.
 - D.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 곧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 딤편 2:4, 4:3, 딤후 2:25, 3:7.
 - E. 진리의 온전한 지식이란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말한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의 실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 딤편 1:1, 살후 2:13.
 - F. 주님의 말씀, 곧 그분의 진리는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디》가 있는 것이다 — 딤후 2:15.
 - G. 우리는 진리들을 배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잠 23:23.
 - 1.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진의를 찾아내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요 8:12.
 - 2. 우리는 어떤 것도 발명해 낼 권리가 없다. 다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 3. 진리를 배운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 이러한 길을 취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지식이나 교리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것이다 — 앱 3:16-17, 4:15, 21.
 - H.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표면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에서 구출되어, 주님과 함께 수고하면서 주님과 협력하여 그분의 놀라운 신약 경륜의 진리의 깊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 앱 3:9.
 - I. 진리로 조성된 이들은 교회에 큰 축복이 된다 — 롬 9:1, 15:29.
- III.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길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뵤후 2:2.
- A. 진리의 길은 신약의 내용의 실재, 곧 진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정이다 — 뵤후 2:2.
 - B. 진리의 길은 바른길이다. 바른길을 간다는 것은 구부러짐이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 뵤후 2:15.
 - C. 진리의 길은 의의 길이다.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곧 그분의 의의 왕국을 위해 의에 따라 그분의 통치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 뵤후 2:21, 9, 마 5:20, 롬 14:17.

D. 진리의 길은 ‘그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 행 9:2.

1.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기름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길이다 — 엡 1:7, 요일 2:27.
2.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 벨후 1:4.
3.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누려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박해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그분을 따르는 길이다 — 요 4:24, 히 13:12-13.
4. 이것은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건축되어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지는 길이다 — 고전 1:2, 12:27, 계 1:2.

E. 진리의 길을 취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실재의 말씀이다 — 벨전 1:22, 요 17:17.

1.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 막 12:30.
2. 이렇게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 요일 5:1.

IV.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확산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마 24:14, 28:19.

A. 복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포함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 엡 1:13, 골 1:5.

1. 오늘날 교회의 유일한 위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이 복음의 내용이 진리이다 — 마 24:14, 엡 1:13, 골 1:5.
2.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곧 높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 막 16:15, 딤후 2:4.
3. 하나님의 복음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롬 1:3-4, 8:3, 29.

B.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보배로운 진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진리를 확산시키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 요 18:37하.

C.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되도록 우리에게 가서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 마 28:19-20.

D.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적용하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확산시켜야 한다 — 눅 8:16.

E.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의 각 방면을 알고 진리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고후 4:2, 요삼 3-4, 8.

F.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시키는 것은 주님의 복원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따르면,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복원이 도래할 것이다.

메시지 4

요한복음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의 회복

성경: 요 1:14, 16, 14:16-20, 6, 20:22, 4:10, 14, 6:35, 57, 12:23-24, 3:29-30

I.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요 1:14, 14:16-20, 딤후 3:15-16상, 딤후 4:22, 3:15-16.

A. 성경의 진리들에는 항상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다 — 롬 8:34, 10, 골 3:1, 1:27.

1.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좋은 겉옷으로 상징된 외적이고 객관적인 방면과, 살진 송아지로 상징된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이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면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주관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 눅 15:22-24, 비교 롬 5:10.
2. 모든 객관적인 교리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위한 것이다. 객관적이신 그리스도는 ‘제일 좋은 옷’, 곧 참회하는 죄인을 덮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렘 23:6, 고전 1:30)이시고, 반면에 주관적이신 그리스도는 ‘살진 송아지’, 곧 믿는 이들이 부활 안에서 생명 공급과 누림을 얻도록(요 10:10, 6:63, 11:25, 12:24, 4:10, 14, 20:22)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풍성한 그리스도(엡 3:8)이시다.
3.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으며, 반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 시 45:13-14, 빌 3:9, 계 19:7-9.
4.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롭게 된 결과이다 — 롬 5:10, 17-18, 11:17, 24, 요 15:4-5, 고전 6:17.

B.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된다 — 요 6:63, 고후 3:6.

1.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따라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2.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며, 이것의 결과로 교회생활이 산출된다 — 롬 8:2, 4, 16:1, 4-5.

II.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인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져야 함을 제시한다 — 요 4:14, 6:57, 20:22.

A.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이다 — 요 1:4, 3:15-16, 10:10, 11:25, 14:6상.

1.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체현이시며, 그 영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 요 5:26, 1:4, 6:63.
2.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증가는 생명의 성장과 흘러넘침이다 — 요 7:37-38, 15:1-8.
3. 이기는 이들은 생명의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분배하는 이들이다 — 요 1:12-13, 16, 10:9-10, 21:15-17.
4.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원천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솟아남으로서 샘이시며, 그 영은 생명의 흘러나옴으로서 강이시다. 이렇게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실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하나님은 생명의 영광으로서 즉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서 계시고, 아들은 생명나무로서 계시며, 그 영은 생명의 강으로서 계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 요 4:14하, 계 21:9하-11, 23, 22:1-2, 5.

- B.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되신다 — 요 1:1.
1.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3.
 2.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14.
 3.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29.
 4.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을 위해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벧엘)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시키시려는 것이다 — 요 1:32-42, 51, 비교 창 28:11-22.
- C. 말씀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시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수 있다 — 요 1:14, 14:16-17.
- D. 그리스도는 숨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들이쉴 수 있게 하였고, 생수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 요 4:10, 14, 6:32-33, 35, 51, 54-57, 7:37-39, 20:22.
- E.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 — 요 15:1-8.
1. 포도나무의 생명과 실질과 본성이 가지들의 생명과 실질과 본성이다 — 요일 5:11-12, 벧후 1:4.
 2.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며, 아버지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작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포도나무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 결국 포도나무는 가지들인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통해 단체적으로 아버지를 표현한다.
- F.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것이다 — 골 3:4, 10-11.

III. 요한복음은 교회에 관한 주관적인 진리들을 계시한다.

- A.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된다 — 요 12:24, 20:17, 15:4-5, 3:29-30.
- B. 주님의 회복은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회복하는 것이다 — 갈 1:15-16, 2:20, 4:19, 1:2.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의 결과인 교회는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 엡 3:16-19.
 2.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 골 1:27, 18, 2:19, 3:15.
 3.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머리이시고,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 분으로서는 몸이다 — 엡 1:22-23, 3:17, 4:15-16, 골 1:18, 27, 3:4, 2:19, 3:15.
- C. ‘교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정의되었다. 요한복음에서 교회는 다음의 일곱 가지 방식으로 언급되었다.
1. 교회는 많은 밀알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된 많은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 요 12:23-24.
 2. 교회는 주님의 많은 형제들로 구성된다 — 요 20:17.
 3.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 요 14:2, 23.
 4. 교회는 많은 가지들이 있는 아들의 포도나무이다 — 요 15:5, 7.

5. 교회는 완결되신 영에 의해 태어난 그 영의 새 아이, 곧 새사람이다 — 요 16:20-22.
 6.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이다 — 요 3:29-30.
 7. 교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양 떼이다 — 요 10:14-16.
- D. 실질적인 교회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산출된다 — 롬 8:10-11, 12:4-5, 16:1, 4-5, 고전 1:9, 30, 15:45하, 6:17, 1:2, 12:27.
- E.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결과는 잔칫집인 교회생활이다 — 요 12:1-11.
1.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 곧 ‘마르다-나사로-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2. 참된 교회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근면한 봉사가 드러지고, 주님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이다.

메시지 5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함

성경: 딤후전 3:15-16, 2:4, 딤후 2:2, 15, 요 18:37

I.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진리를 붙들어 주는 기반이다 — 딤후전 3:15.

- A.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 요 14:6, 18:37, 요일 1:6, 5:20.
- B.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 딤후전 2:4, 골 2:9, 19.
- C.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체현과 중심과 표현이신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골 2:9, 엡 1:22-23, 4:16, 딤후전 3:15, 요 3:3, 5.
- D.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짊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 요 1:14, 17, 14:6.
- E.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둥을 떠받쳐 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 골 2:2, 엡 3:4.
- F.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속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살아 있는 진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 딤후전 3:15.
- G.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가장 큰 필요는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신성한 계시로 훈련받아야 한다 — 딤후전 2:4.

II. 모든 성도가 진리를 떠받치는 것이 필요하다 — 딤후전 3:9, 15, 딤후 2:15.

- A.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진리를 붙들어 주는 기반은 모든 성도를 포함한 교회 전체이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기반의 일부이다 — 딤후전 3:15.
- B.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 딤후전 2:4.
 - 1.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는 교회가 반드시 진리를 떠받쳐야 한다 — 딤후전 3:9.
 - 2. 교회가 강하려면 모든 형제자매가 반드시 진리를 배우고 체험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리를 떠받쳐야 한다 — 딤후전 2:4.
 - 3. 우리가 매일의 교회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한다면, 진리를 떠받치는 것에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 요이 4, 요삼 3-4, 8.

III.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 딤후전 3:15-16.

- A.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개인적으로 표현되신 것이다 — 딤후전 3:16, 골 2:9, 요 1:1, 14.
 - 1.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계시한다 — 딤후전 3:15-16.

- a. 하나님은 단지 아들로써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 전체로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 b. 단지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육체가 되셨다. 따라서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체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셨다.
 -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의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 요 8:58, 7:6, 12:24.
 - (2) 육체 되심을 통하여 신성한 합병체이신 분, 곧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상호 내재하시고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이끌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합병체이시다 — 요 14:10-11.
2.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골 2:9.
- a. ‘신격의 모든 충만’은 신격 전체,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 b.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격의 충만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이다.
 - c.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것을 의미한다 — 요 14:10.
 - d.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전체이시다.
- B.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경건의 비밀임을 시사한다.
1.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은 독실함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 냄으로 표현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 a.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 경건의 비밀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 b.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의 생활이다 — 고전 1:6, 14:24-25.
2.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교회는 육체 안에서의 확장되고 단체적인 표현이다 — 엡 2:19, 1:22-23.
- a.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요 14:9.
 - b.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은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의 증가와 확장과 번식이다 — 딤후 3:15-16.
 - c.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의 연속이 된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 내게 된다.
3.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도록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 롬 8:3, 1:3-4, 엡 4:24.

메시지 6

시대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에 대한

최신의 진리를 알고 확산시킴

성경: 뵤후 1:12, 뵤전 1:3-4, 마 16:18, 삼하 7:12-14상, 롬 1:3-4, 계 21:2, 9-10

- I.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서 수행하시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 시대의 사역은 현재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도 번역될 수 있다.
- A. 비록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에게 감추어졌다 — 비교 왕하 22:8.
 - B.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
 - C.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된다. 따라서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적된 계시들이다.
 - 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깨어서, 육체가 들어오거나 자아가 어떤 입지를 얻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 II.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진리,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복음’(행 13:32)이다.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 즉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이다(행 13:22-23, 33-34, 26:6, 16-19, 삼하 7:12-14상, 롬 1:3-4, 마 22:41-45).
- A.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낮추어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높은 복음을 전해야 하지, 결코 그 개념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살전 1:1, 3-4, 10, 5:23, 고전 2:7-13). 우리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욥 32:8, 스펀 12:1, 전 3:11, 행 17:26-29, 사 43:7).
 - B.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진리를 성경 전체에 따라 한 항목 한 항목씩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위임이다 — 고전 1:9, 9:16-17, 23, 뵤전 1:3-4, 2:7, 4:16, 뵤후 1:11, 2:2, 15, 골 1:28.
- III.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 롬 1:3-4.
- A.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한 아들의 자격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롬 1:1, 3-4, 8:28-30, 12:5.
 - B.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나오는 예표 안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의 비밀을 밝혀 준다.
 - C.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요 1:18)는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곧 인간 본성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

- D.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신화(神化)되고 아들화된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게 되셨음을 의미한다 — 롬 8:29.
- E.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인 하나님-사람이 되었다.
- F.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다윗의 씨)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하나님의 인정받은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요 14:23, 15:4-5, 롬 1:3-4.
- G. 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요 12:24.
 - 1. 씨가 땅에 묻혀서 죽는다면, 결국에는 부활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왜냐하면 씨의 생명의 작용은 씨의 죽음과 동시에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 고전 15:36, 벰전 3:18.
 -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인 거룩한 영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작용하게 되었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꽃피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셨다 — 롬 8:29, 고전 15:45하.
 - 3. 원형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재생산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자 원형의 지체들이며, 이들은 그분의 몸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 골 1:18, 벰전 1:3.

IV.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 히 2:10-11.

- A.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즉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에 있다 — 롬 8:28-29.
- B.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심졌다 — 롬 8:10.
 - 1. 이제 우리는 땅속에 뿌려진 씨처럼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 요 12:24-26.
 - 2. 이것은 우리의 걸사람을 소모되게 하지만, 속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고 발전되어 최종적으로 꽃피게 한다. 이것이 부활이다 — 고전 15:31, 36, 고후 4:10-12, 16-18.
- C.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부활에 의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다 — 롬 8:11.
 - 1. 우리가 인정되고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은 네 가지 주된 방면, 곧 거룩하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포함한 부활의 과정이다 — 롬 6:22, 12:2, 8:29-30.
 - 2. 인정되는 과정의 열쇠는 부활이며, 이 부활은 솟아오르는 영이시자 인정받게 하시는 영이시자 생명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 요 11:25, 롬 8:10-11, 행 2:24, 고전 15:26, 5:4.
 - a.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며, 인정받게 하시는 영을 누리고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 롬 8:4, 14, 마 14:22-23, 막 1:35-38, 시 62:8, 102편 제목.
 - b.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할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 고전 12:3, 롬 10:12-13, 8:15-16, 갈 4:6.
- D.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라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 — 고후 3:18, 6, 16, 5:4, 9, 14-15, 1:12, 12:7-9.
 - 1.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한다 — 롬 12:2, 엡 1:22-23, 2:20-22.

2. 인성은 신성 안에서 인정되고,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섞인다. 오늘날 인성의 씨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다 — 마 16:18, 엠 3:16-19, 계 21:2, 9-10.
 3.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경륜과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7.
 4. 어느 날 이 과정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을 것이다 — 요일 3:2, 롬 8:19, 23, 영한 동변 찬송가 948장(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764장) 2절.
- E. 하나님 편에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신화되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신적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며, 가장 높은 복음이다.

V.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와 각주가 있는 〈회복역〉 성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장 높은 진리로 조성되고 이 진리를 확산시켜야 한다.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역〉 성경은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성경의 각 권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다 — 욥 10:13, 비교 엠 3:9.

- A.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리이다.
1. 《라이프 스타디》 및 〈회복역〉 성경과 모든 각주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이다. 이것들은 성경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경 안으로 이끌어 준다 — 행 8:26-39.
 2. 우리는 〈회복역〉 성경의 본문과 각주, 그리고 《라이프 스타디》를 교과서로 여겨야 하며, 많은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가벼운 방식으로 단지 읽기만 한다면, 다만 약간의 일시적인 자양분과 영감만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이 우리의 빛 비춤 받은 기억 속에서 진리가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구한 자양분이 된다 — 시 119:130.
 3.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의 의도와 목적은 성경의 진리라는 ‘광산을 열어 주어’ 우리가 보물들을 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수년을 들여서 들어가야 할 많은 서적을 출판해 왔다.” — 장로 훈련, 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149쪽.
- B.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1.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책들 안에 모아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복역〉 성경과 함께 그 각주들은 지난 이천 년 동안 온 땅의 성도들이 신성한 계시에 관해 이해한 것의 ‘결정(結晶)’이다.
 2.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진리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진리들을 확산시키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께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살며 주님의 회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수많은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동일한 진리들을 확산시키는 한길을 취하여, 제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위임을 이룰 것이다 — 고후 5:14-15, 마 24:45.
 3. 교회의 증가는 진리의 확산에 달려 있다. 오직 진리만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교회의 번성과 확산을 가져와야 한다 — 행 6:7, 12:24, 19:20.